

제105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4. 11. 26.(수) 07:30

☐ 장 소 : 달개비

☐ 참 석 자 : 8명(이사 7명, 감사 1명)

- 이 사 : 이○○, 염○○, 정○○, 엄○○, 김○○, 이 ○, 김○○
- 감 사 : 문○○

☐ 심의안건

- [제1안건] 서울연구원정관 일부개정(안)
- [제2안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
- [제3안건] 직제규정 중 일부개정(안)
- [제4안건] 보수규정 중 일부개정(안)
- [제5안건] 여비지급규정 전부개정(안)

[07:30]

○ **기획조정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윤혁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사장님과 이사님 그리고 감사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보고에 앞서, 지난 9월 연구원 인사발령으로 신○○ 기획조정본부
장께서 부원장으로 승진하셨으며, 제가 기획조정본부장으로 임명되었
습니다.

오늘 이사회의 성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10분 중 7분이 참
석하여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습니다.

- **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연구원 제10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서울연구원정관 일부개정(안), 2015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직제규정 중 일부개정(안), 보수규정 중 일부개정(안), 여비지급규정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윤혁렬 기획조정본부장으로부터 서울연구원 2014년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본부장** : [2014년 서울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설명
- **이사장** :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첫 번째 안건으로 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혁렬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본부장** : [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안)] 설명
- **이사장** :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장** : 이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서울연구원 부설로 출범시켰습니다. 원래 2~3년 인큐베이팅 후 독립시키려고 하였는데, 독립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내년부터 독립하는 것으로 되어 정관을 당연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 : 궁금한 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평생교육진흥원이 별도 재단으로 설립되어 이사회가 구성되고 원장을 공모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자체규정으로 원장을 선임하는데, “겸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요청이 오면 ‘겸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취지 인 것이죠?

- **원장** : 네. 그 규정을 없애버리면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자리에 공백이 생기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재단으로 출범할 때까지는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조직담당관** : 평생교육진흥원 재단설립 조례가 통과된 상태이고 원장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임의규정으로 바꿔 놓고 추후에 이 조항은 삭제할 예정입니다.
- **이사장** : 이상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두 번째 안건으로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중에 제일 중요한 안건으로 생각되는데 기획조정본부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본부장**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 설명
- **이사장** : 지금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들었는데,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 **이 사** : 작은 결혼식 지원이 무엇입니까?
- **원장** : 연구원 후정을 결혼식장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장소 제공은 무료이고, 음향이나 결혼식장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예산이 30억 증가하는 거죠? 내년 서울시 예산 증가율이 몇

%나 되죠?

- **조직담당관** : 제가 증가율까지는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은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고 혁신방안을 구축하고 하셔서 전년도보다 출연금이 28억 늘어났습니다.
- **이사장** : 예산이 15%정도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 경상경비는 그 비율만큼 줄었더군요.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가 큼니다.
- **원장** : 투자출연기관 중에 이례적인 예산증가로 보입니다. 증가된 예산이 처우개선과 연구사업비에 반영되는데 연구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인데 저희도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 **이사장** : 걱정이 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이 사** : P10에 “기반형 인프라 연구” 확대 강화 등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과제나 연구원 운영에 대한 제안이 많아서 반갑고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선상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과제기간이 짧아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과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반형 인프라 연구”가 확대가 되는데 2015년 과제는 대략적으로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 이런 기반형 인프라 연구는 언제 정해서 이루어지나요?
- **기획조정본부장** : 과거에는 기반형 과제라고 따로 칭하지 않더라도 기본과제, 정책과제 등의 과제기간이 10개월, 1년, 그 이상이 되는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따로 강조하지 않았는데, 과제기간이 2-3개월 되는 현안대응형 과제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구데이터 축적을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반형 인프라 연구라는 것이 새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드린 과제 중에 그런 성격을 띄는 과제들은 좀 더 길고 기반형으로 과제기간이 짧아도 되는 것은 짧게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 사** : P16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사업 수행계획을 보면, 연구과제 수행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경제민주화', '창조·융합', '소상공인·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인데 실제로, 자체과제에는, 예컨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내용이 잘 안보이네요.
- **기획조정본부장** : 자체과제가 100%확정은 아니고요. 일단 이 과제를 10개 정도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고, 여기에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과제가 더해지고, 그리고 이사님께서 이야기 하신 과제들은 수탁과제 형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체과제는 부서 자체에서 수행하는 과제이고 여기에 수탁과제, 서울시 제안과제 등이 더해져서 내년에 과제를 수행 할 예정입니다.
- **이 사** :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P25 외부전문가와 협력적 연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이런 연구를 수행할 때 외부전문가를 초빙연구원으로 임용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구원에서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말씀 인거죠?
- **기획조정본부장** :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객원연구원이나 초빙 연구위원으로 임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연구원에 박사님이 68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모든 연구 영역을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사** : 이와 관련하여 제가 당부 겸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빙연구원이 들어와서 서울연구원과 협력적 연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겉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빙연구원이 와서 협력연구를 하기 보다는 혼자 연구를 하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저는 협력연구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으로 분리 되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좋은 취지로 추진하는 김에 좋은 매뉴얼 만들어 시도해 보고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거버넌스나 협력연구에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이 사** : 저도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연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연구사업이고, 연구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연구과제 발굴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연구실은 수행예정과제가 안건에 있는데, 미래연구센터나 전략연구센터 등 센터들은 큰 프로젝트만 있고 구체적인 과제 수행 내용이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잘 안오네요. 내부적으로 수행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발굴하는데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협력형 연구를 수행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연구원 이외에 여성가족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유사한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출연기관과도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사회연구실과 미래연구센터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지 않고 연구과제로 구분하기 어려운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장** : 우선 미래사회연구실과 미래연구센터, 이 둘 사이에 혼란이 좀 있어서, 다음 안건이 미래사회연구실의 이름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연구실 이름에서 '미래'를 빼고 사회, 문화, 복지, 행정 등 사회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도시사회연구실'로 명칭을 변경 예정입니다.

협력형 연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시민사회, 시민단체, 학계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산하에 연구기능을 실행 조직들,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과도 협력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복지재단은 우리연구원보다 관련 분야 전문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들은 실행기능을 담당하다보니까 큰 그림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 재단도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연구를 같이 하자는데에는 이미 합의를 하였고,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는 다음주에 만나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워낙에 협력이 안되던 부분이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과제발굴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는 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짓느냐는 것입니다. 종자를 잘못 고르면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제를 발굴하는 방법은 시민 공보, 서울시로부터 의견수렴, 연구자문위원회, 연구실별 과제개발회의 등 다양합니다. 여기서 늘 고민이 되는 것이 지금 결정하는 과제가 보고서가 나올 때 좀 사회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연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건에 나와 있는 수행예정 과제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 과제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일정들이 12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취합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사님들이 주신 말씀들도 포함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조직담당관** : 서울시에서도 과제발굴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님들 이야기 하신 것들을 연구 활동 및 연구원 운영에 조언주신 것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세 번째 안건으로 직제규정 중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본부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본부장** : [직제규정 중 일부개정(안)] 설명
- **이사장** : 의견 있으십니까?
- **이 사** : 도시사회연구실이 생기면 기존의 도시공간연구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원장** : 도시공간연구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 **이 사** : 그럼 도시사회연구실과 도시공간연구실은 따로 있게 되나요?
- **원장** : 도시공간연구실은 도시계획이나 재개발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곳이고, 도시사회연구실은 복지나 행정등 사회전반의 문제들을 다루는 곳입니다.
- **이 사** : 도시공간연구실은 주택문제 등을 연구하는 곳이고, 도시사회연구실은 사회문화 등을 연구하는 곳인 거죠?
- **원장** :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본부장** : 문과, 이과의 차이입니다.

- **이 사** :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간 안에 인문과 공학,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는 융합적으로 가는 방식의 전략들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에도 도시재생과 인문학이 자꾸 들어가는 추세에서 도시공간과 도시사회를 분리하는 이름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 사** : 두 분야가 너무 달라서 합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 **부원장** : 연구수행과정에서는 같이 협력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 **기획조정본부장** : 부서 단독으로 연구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고요, 보통 부서끼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합니다.
- **이 사** : 기구표에서 센터 2개는 부원장 산하이고, 센터 3개는 원장 산하인데 왜 그런 것입니까?
- **원장** : 부원장 산하의 도시정보센터나 세계도시연구센터는 지원부서의 조직이 강합니다. 이름은 같이 센터이지만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 **이사장** : 충분히 토의가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통합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전제로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네 번째 안건인 보수규정 중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본부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본부장** : [보수규정 중 일부개정(안)] 설명
- **이사장** : 의견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 **이 사** : 1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늘리신 거죠?
- **김수현 원장** : 네. 5년으로 늘리고 15일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 **이 사** : 조금씩 주겠다는 뜻인 거죠?
- **기획조정본부장** : 1년 이상을 5년으로 늘리는 것도 그렇고, 1일만 근무해도 해당 월의 월급을 다 주는 것이 조금 그래서, 15일 이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이 사** : 15일 미만은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 **원장** : 네. 일할계산으로 지급합니다.
- **이사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다섯 번째 안건인 여비지급규정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본부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본부장** : [여비지급규정 전부개정(안)] 설명
- **이사장** : 현행 여비지급규정은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미치지 못했나요?
- **기획조정본부장** : 공무원 여비지급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연구원 규정이 많이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연구원 규정이 조금 낮았습니다.

- **이사장** : 서울시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 **조직담당관** : 시에서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사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서울시 행정업무가 방대하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는 원장님과 연구원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이사회에서 심층적인 질문과 토론을 해주신 이사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님들의 조언을 잘 수렴해서 보다 능률적으로 연구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제105회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